

‘지성의 근본주의’ 표방하는 개념 교양서

이후 <B2B21> 시리즈 1차분 펴내

이후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는 뜻을 담은 인문·사회과학 기본 개념 시리즈 <B2B21>을 출간했다. ‘지성의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이 시리즈는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 출판부와 폴리티 출판사 등에서 출간한 기본 개념 시리즈 가운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양과 학문의 기본을 갖추는데 필요한 책들을 선별해서 펴낸다. 시리즈 1차분으로 먼저 다섯권을 선보였다.

시리즈 첫권은 탈근대주의 사회학 이론가 지그문트 바우만의 《자유》(문성원)다. 국내 최초 완역이라는 의미도 있는 이 책은 자유로운 개인은 인류의 보편적 조건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전제 아래, 소비자 자유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생산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현존하는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로 평가받는 데이비드 맥켈렌은 《이데올로기》(구승회)에서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역사를 되새기고, 전지구화와 이데올로기 종언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점검한다. 피터 칼버트의 《혁명》(김동택)은 현대 사회이론에서 혁명이 차지하는 위치를 짚어주고, 다양한



지그문트 바우만 외 지음 | 문성원 외 옮김
이후/B6/184면 내외/각 7500원

혁명이론의 쟁점을 명쾌하게 정리해준다. 더불어 혁명을 이론화했던 테다 스카치폴, 배링턴 무어 등의 논의를 평가하고 사회과학 일반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해 혁명을 분석한다. 제인 프리드먼의

《페미니즘》(이박혜경)은 ‘평등과 차이’라는 논제에 초점을 맞춰 페미니즘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이론과 정치이론 등을 분석한다. 또한 민족성과 정체성 등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논쟁들을 중심으로 최근의 페미니즘 동향도 소개한다. 마크 네오클레우스의 《파시즘》(정준영)은 ‘파시즘, 모더니티,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인가?’ ‘파시즘은 왜 본질상 파괴적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군부 파시즘부터 일상적 파시즘까지 파시즘의 다양한 변종의 실체를 파헤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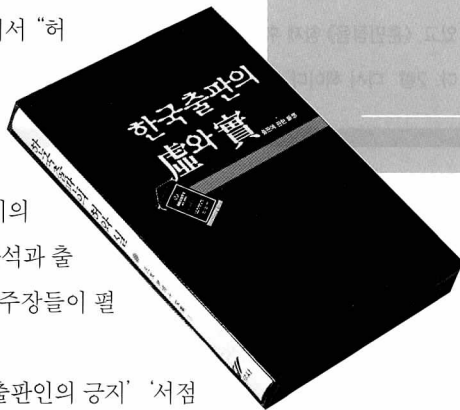
파시즘을 계몽에 대한 반동이자 모더니티의 파괴적 잠재력으로 정의하면서 그것의 정치·사회·철학적 근원을 살폈다.

이 시리즈는 올해 20권 출간을 목표로 향후 3년간 총 50여종을 출간할 예정이다. 지성의 근본이 되는 개념, 변화하는 세계와 한국 사회를 읽을 키워드들을 선정해 소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어질 주제들은 근본주의, 유토피아주의, 다문화주의, 오리엔탈리즘, 사회진화론, 개인주의 등이다. —박옥순 기자

범우사 대표이자 한국출판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출판계 원로 윤희두씨가 지난 30여년간 쓴 출판 관련 단평을 모아 《한국출판의 허와 실》(범우사)을 펴냈다. 지은이는 후기에서 “허드레 글들을 모았다”는 겸손한 표현을 썼지만, 에세이 형식의 짙막한 글들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우리 출판계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책이다. 또한 지은이의 경력에서 드러나듯 출판현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출판학을 포함한 출판 인프라의 초석을 놓았던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어 흥미롭다.

책은 ‘출판산업과 출판문화’ ‘출판교육과 출판인의 긍지’ ‘서점 공간과 독자창출’ ‘출판유통과 출판문화’ ‘한국출판계의 개선과 발전을 기원하며’ ‘잡지발행인 칼럼’ ‘출판학 연구의 권두언’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에서는 상업주의가 판치는 출판문화의 척박함 및 공약뿐인 문화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출판문화 창달을 위한 것임에도 전문 8조 가운데 보호육성에 부합되는 조문을 발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 일례다. 제2장에서는 출판현업인 연수의 필요성, 4년제 대학 출판학과 개설의 필요성, 출판학과 커리큘럼의 문제 등 출판교육 전반의 빈약함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제3장



윤희두 지음
범우사/A5신/358면/12,000원

한 원로 출판인의 체험적 출판론

《한국출판의 허와 실》

과 4장에서는 출판산업이 구조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흐름을 읽으면서 국제저작권조약 가입과 국내 저작권제도의 확립, 시장 개방과 국제화,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출판체제의 개혁 등을 부르짖는다. 재고도서 시장 개척, 도서관 확충, 대형도매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현안들인지라 출판계의 자성을 요구한다. 책의 뒷부분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마문, 한국출판협동조합 취임사, 《역사산책》《책과 인생》의 창간사, 《출판학 연구》의 권두언 등을 실어 출판에 대한 지은이의 이념과 리더십을 엿볼 수 있다.

글의 행간에 살아 숨쉬고 있는 비판성과 현장성은 이 책의 고유한 미덕이며 출판계가 수용해야 할 고언과 호소로 읽히기에 모자람이 없다.

—강성민 기자